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산업은행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한국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불법과업 매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답을 요구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세 명이 저임금과 위험노동의 굴레를 끊겠다는 의지로 7월 14일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43일째, 1도크 결사 투쟁 23일째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 의원은 “오늘 발표한 정부 입장에 허탈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라며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았다”라고 어처구니없어했다. 이은주 의원은 “대우조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 연

같은 날 아침 윤석열 정부 산업부와 노동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 ‘불법과업’ 딱지를 붙이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금속노조는 7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산업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실소유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43일 만에 정부 입장이 나왔다. 노사 대화로 해결하자는 무책임한 내용이었지만 정부가 관심을 보였다. 사실을 금속노조는 주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불황이라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에서 쫓겨나고 임금을 삭감당했다”라며 “빼앗긴 임금을 제 자리로 돌려달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소박한 요구를 걸고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7월 20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요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단행한다”라며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 원청이 상황을 바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나라 1천만 비정규직의 처절한 노동 현실, 줄어든 임금, 물가 폭등을 해결할 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서명을 받고 있다”라며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예고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현장 발언이 뒤를 이었다. 강봉재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0.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우리 동지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라며 “책임 있는 이들이 답을 하지 않아 오늘부터 여기 산업은행 앞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답을 요구한다”라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임하는 심경을 밝혔다.

강봉재 조합원은 “대우조선 전 구성원은 해결책이 원청과 산업은행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제발 조속히 답을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금속노동자들은 산업은행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1도크 7인 결사대 금속노조가 구출하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꼭 승리해 연대에 보답하겠다”

역수가 쏟아졌다. 비옷도 우산도 몸을 가릴 수 없었다. 역수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노동자들의 분노의 함성은 막을 수 없었다.

금속노조가 7월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 하청 조합원, 경남지부, 서울지부, 경기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등 조선노연 사업장 조합원 등이 참가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금속노조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 투쟁은 너무나 절박하고 정당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 동지들의 요구는 도둑질당한 임금 원상회복과 노조 인정 단 두 가지다. 이 요구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7월 20일 총파업의 칼날을 윤석열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 원청에 겨누기로 결정했다” 라며 “이 투쟁은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투쟁이자 대한민국에서 고통받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다. 도크에서 투쟁 중인 일곱 명의 동지를 생각하면서 온몸을 던져서 싸우겠다” 라고 결의했다.

강인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투쟁사에 나섰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우리는 힘들지 않다. 유죄판 동지가 갇혀 있는 1m 공간보다 더한 차별과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



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은 힘들어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1989년 대우조선 구사대가 정규직을 짓밟았다. 30년이 넘는 2022년에 대우조선이 현책 연이라는 구사대를 동원해 하청노동자를 짓밟았다” 라면서 “‘조선하청지회 개새끼들은 물러가라’ 라는 구호를 들으면서 우리는 참았다. 생각의 일치, 행동의 일치라는 투쟁 원칙 아래 우리가 먼저 폭력을 쓰지 않기로 했다” 라고 결기를 보였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2021년 산업은행 순이익 2조 2천억 원이라고 한다. 12,000 하청노동자 전체의 임금 인상하려면 1,200억 원이면 충분하다” 라며 “2조 2천억 원 수익 남긴 산업은행, 대우조선 들어라. 1,200억 원이면 된다. 왜 해결하지 못하는가” 라고 일갈했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자랑스러운 금속노동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라면서 “조선하청지회 밀어달라. 1도크 일곱 명의 결사대 동지들을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구출하자” 라고 호소했다.

산업은행에서 대회를 마친 금속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대회를 이어갔다.

문정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도장분회장은 투쟁사에서 “원청 직 반장들이 하청지회 조합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하고 있다. 창원 경남경찰청 앞에 가서 공권력을 투입해 달라고 시위도 한다” 라며 “하청업체 대표라는 사람들은 자기 식구들 응원하지 못할망정 원청의 개들하고 붙어서 우리 투쟁을 비하하며 폭력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라고 분노했다.

문정호 분회장은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라는 생각도 했지만 민주노총·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사실에 힘을 다시 얻었다” 라면서 “일곱 명의 결사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결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시작한 투쟁 우리가 끝을 맺겠다. 꼭 승리해서 연대에 보답하겠다” 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총파업, 기후위기 넘기 위한 집단 정치 실천”

시민사회단체, 금속노조 총파업 연대 기자회견 ... “파업에 공감·지지해줘 고맙다”

전국의 시민·사회·종교단체·정당들이 금속노조의 노동중심 산업전환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해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138개 단체를 대신한 각계 대표자들과 노조는 7월 13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동중심 산업전환, 정부는 금속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하 대표는 “배를 짓는 대부분의 노동은 하청노동자가 하지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조선소에서 빠진 노동자들이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현 정권이 조선산업을 부양할 생각이 있으면 조선하청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리고 산재 없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김재하 대표는 사측이 하청노동자에게 저지르는 구사대 폭력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박승렬 NCKK인권센터 부이사장 목사는 “금속노조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단행하는 이번 파업은 산업전환기에 사회 취약계층인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자는 투쟁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승렬 목사는 “조선소 도크와 자



기가 지은 맞은 감옥 속에 갇혀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우리가 함께하겠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라고 기원했다.

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로 모인 20만 금속노동자들이 단결한 힘으로 총파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실 때문에 이번 총파업 투쟁은 한국 기후정의 투쟁의 중요한 분수령이다”라고 정의했다.

정록 집행위원장은 “금속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집단 정치 실천이다”라며 “세상을 망가뜨린 기업과 자본이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가 아니고, 노동자·시민이 대안이고 주체라는 선언이다”라고 평가했다.

정록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 체제를 근본부터 바꾸는 투쟁이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특정 기업·산업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속노조 노정교섭 요구는 개별 기업·산업의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사가 지은 맞은 감옥 속에 갇혀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우리가 함께하겠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라고 기원했다.

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로 모인 20만 금속노동자들이 단결한 힘으로 총파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실 때문에 이번 총파업 투쟁은 한국 기후정의 투쟁의 중요한 분수령이다”라고 정의했다.

정록 집행위원장은 “금속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집단 정치 실천이다”라며 “세상을 망가뜨린 기업과 자본이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가 아니고, 노동자·시민이 대안이고 주체라는 선언이다”라고 평가했다.

정록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 체제를 근본부터 바꾸는 투쟁이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특정 기업·산업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속노조 노정교섭 요구는 개별 기업·산업의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사가 지은 맞은 감옥 속에 갇혀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우리가 함께하겠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라고 기원했다.

사가 지은 맞은 감옥 속에 갇혀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우리가 함께하겠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라고 기원했다.

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로 모인 20만 금속노동자들이 단결한 힘으로 총파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실 때문에 이번 총파업 투쟁은 한국 기후정의 투쟁의 중요한 분수령이다”라고 정의했다.

정록 집행위원장은 “금속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집단 정치 실천이다”라며 “세상을 망가뜨린 기업과 자본이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가 아니고, 노동자·시민이 대안이고 주체라는 선언이다”라고 평가했다.

정록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 체제를 근본부터 바꾸는 투쟁이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특정 기업·산업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속노조 노정교섭 요구는 개별 기업·산업의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사가 지은 맞은 감옥 속에 갇혀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우리가 함께하겠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라고 기원했다.

산업이 무엇인지, 어떤 노동을 사회가 함께 만들고 조직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결정하지는 요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파업에 관한 지혜를 모아주기 위해서 함께한 시민사회단체에 고마움의 인

사를 전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7월 20일 총파업 목적은 첫째, 전환기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교섭을 쟁취, 둘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의 올바른 해결, 셋째, 현재 상황 책임 있는 윤석열 정부 규탄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자본 주도 산업 전환을 막지 못하면 430만 한국 제조업 노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저임금, 불안정노동, 대량 실업 사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금속노조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실질적으로 거부했다”라고 비판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 총파업은 한국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사회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올바른 방향으로 시대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파업이다”라며 “금속노조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월 12일 기준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시민·사회·종교단체·정당은 138개 단체다.